

---

**2009 KOIMA 동남아시아 통상사절단  
태국(Thailand) 정보**

---

---

2009. 8.

**한국수입업협회  
국제통상팀**

# 목 차

I. 태국 개황 .....	1
II. 태국 경제 현황 .....	3
III. 태국 산업 구조 .....	5
IV. 태국 수출입 현황 .....	7
V. 한-태국 교역 현황 .....	10
VI. 對 태국 한국기업 투자 현황.....	12
VII. 태국 비즈니스 Tips .....	13

# 태국 개황

## 가. 일반 사항

국 명	태국 (The Kingdom of Thailand)
위 치	동남아시아(북위: 5.37~20.27도, 동경: 97.22~105.37도)
면 적	514천 km <sup>2</sup> (한반도의 약 2.3배)
기 후	열대 몬순 기후(건기: 11월~2월, 우기: 7월~10월, 열대 기후: 3월~6월)
수 도	방콕(Bangkok)
인 구	6,574만 명
주요 도시	방콕(568만 명), 치앙마이(159만 명), Nakhon Ratchasima(254만 명), Nakorn Srithammarat(152만 명), Ubon Ratchathani(177만 명), Udon Thani(152만 명)
민족(인종)	순수 태국계(75%), 중국계(14%), 말레이계(11%)
언 어	태국어(공용어), 영어(상용어)
종 교	소승불교(90%), 회교(6%), 기독교(2%), 기타(2%)
건국일	1782년 4월6일(현 왕조 출범일)
정부 형태	입헌군주제
국가 원수	○ 국왕: Rama IX (Bhumibol Adulyadej) ○ 총리: 아피싯 베차시바(Abhisit Vejjajiva)

자료: EIU 자료(2009.2), 태국중앙은행(2009.2)

## 나. 주요 경제 지표

GDP	US\$ 2,772억(2008)
실질 경제 성장률	4.5%(2005), 5.2%(2006), 4.9%(2007), 4.5%(2008)
1인당 GDP	US\$ 4,200(2008)
실업률	1.4%(2008)
물가 상승률	4.2%(2008)
화폐 단위	Baht, Satang(1/100바트)
환율	Baht 36.00(2009.3.13)
외채	US\$ 665억(2008)
외환 보유고	US\$ 1,106억(2008년 기준)
산업 구조	농업(9.8%), 제조업(44.0%), 서비스업(46.2%)
교역 규모	○ 수출: US\$ 1,800억 ○ 수입: US\$ 1,810억 ○ 무역적자: US\$ 10억(2008)
교역 품	○ 수출: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 수입: 원유, 철광석, 전자제품, 기계류

자료: EIU 자료(2009.2), 태국경제사회개발원(2009.2)

다. 한- 태국 관계(2009년 3월 기준)

<p><b>체결 협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교수립(1959)</li> <li>○ 무역협정(1961.9),</li> <li>○ 무역전시품 면세통관협정(1963.5)</li> <li>○ 항공협정(1967.7)</li> <li>○ 관용여권 사증 및 수수료 면제협정(1967.10)</li> <li>○ 이중과세방지협정(1974.8)</li> <li>○ 운수소득 면세협정(1977.10)</li> <li>○ 사증면제협정(1981.11)</li> <li>○ 과학기술협력협정(1985.6)</li> <li>○ 투자보장협정(1989.3)</li> <li>○ 범죄자 인도협정(1999)</li> <li>○ 해운협정(2002.5)</li> </ul>
<p><b>교역 규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수출: US\$ 44 억 8,000</li> <li>- 우리나라 수입: US\$ 37 억 6,000</li> <li>- 무역 흑자: US\$ 7 억 1,000</li> </ul> </li> <li>○ 2008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수출: US\$ 57 억 8,000</li> <li>- 우리나라 수입: US\$ 42 억 8,000</li> <li>- 무역 흑자: US\$ 15 억</li> </ul> </li> </ul>

---

# 태국 경제 현황

---

## I. 낙관적 요인

### ○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추진

- 태국 정부는 당초 2010부터 3개년간 447억 달러 규모로 추진 예정이었던 제2차 경기 부양정책을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해 일정을 앞당겨 2009년 10월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 중
- 태국정부의 기대대로라면 이러한 경기 부양 정책이 경제성장률을 5% 향상 시키고 2010~2012 기간 동안 1.6백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임.
- 이미 태국 정부는 1차 경기부양 정책으로 33.3억 달러를 책정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 현금분배, 재산세 면제, 공공사업 등을 진행 중
- 이번 2차 경기부양 정책이 지출할 분야는 65.9억 달러가 투입되는 농지수로 개선, 산업용수 공급, 325.7억 달러의 인프라 개발, 1.9억 달러의 관광산업 지원, 5.8억 달러의 연구개발, 공예산업, 문화산업 지원 등이며 나머지 자금은 교육 개선, 공중보건서비스 개선, 남부지방 개발 등에 사용될 예정

## II. 비관적 요인

### ○ 수출 감소

- 태국 상무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태국의 2009년 3월 수출은 115.5억 달러로서 2008년 3월 대비 23.1% 감소했으며 1분기 전체적으로는 2007년도 1분기 대비 20.55%가 감소했음.
- 한편 수입현황을 보면 수입 감소폭은 수출 감소폭보다 더욱 커서 2009년 3월 수출액은 94.5억 달러로 2008년 3월 대비 35.1%가 감소했으며 1분기 전체적으로는 267.3억 달러를 기록하여 2008년 1분기 대비 37.6%가 감소했음.
- 산업별 수출현황을 보면 농산물 수출이 2008년보다 20.6% 줄었으며 산업생산물 수출은 21.6%가 감소하였음.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자본재 수입이 2008년 대비 24.7% 감소했으며, 원자재 및 반제품 수입이 43.2% 감소, 소비재 13% 감소, 자동차 및 부품이 38.3% 감소를 보였음.

## ○ 최근 비상 사태 선포 등 정치적 불안 지속

- 2008년 12월 반정부 시위대(PAD)의 방콕국제공항 점거사태로 관광국으로서 태국의 이미지는 국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음.
- 2009년 4월 태국 최대 명절인 송크란 축제 기간 중 발생한 반정부 시위대(UDD)의 아세안 정상회담장 난입, 방콕 시내 도로점거 등으로 인하여 태국은 또 한번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음.
- 태국은 2008년 정치혼란으로 1년 동안 총리가 두 번이나 교체되어 장기적인 정책마련과 정책집행의 일관성 유지가 어려웠음.
- 2009년 4월의 소요사태는 단기간에 진정이 되기는 하였으나 그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투자위축, 관광객 감소 등으로 태국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태국 연도별 경제 성장 예상치

분류	2008	2009(예상치)	2010(예상치)
GDP성장률(%)	2.6	-3.5 ~ -1.5	1.5 ~ 3.5
민간소비(%)	2.5	-0.5 ~ 0.5	1 ~ 2
민간투자(%)	3.2	-14 ~ -12	2.5 ~ 4.5
공공소비(%)	0.4	11.5 ~ 13.5	-1 ~ 1
공공투자(%)	-4.8	4 ~ 6	1 ~ 3
수출(%)	5.5	-20.5 ~ -17.5	5.5 ~ 8.5
수입(%)	7.5	-27.5 ~ -24.5	9.5 ~ 12.5
무역수지(10억 달러)	0.2	10.5 ~ 13.5	2.5 ~ 5.5
경상수지(10억 달러)	-0.2	11.5 ~ 14.5	4 ~ 7

자료: Bank of Thailand(2009년 4월)

---

# 태국 산업 구조

---

## I. 개요

- 태국은 경제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농업 37%, 제조업 15%, 도·소매업 15%, 숙박·요식업 6%, 건설업 5% 등으로 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농업 국가이다. 그러나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농업은 11%를 차지하며 제조업, 서비스업 등이 나머지 89%를 차지하고 있다.

## II. 주요 산업별 동향

- **태국 농업** 인구는 1,360만 명으로 전체 노동 인구의 37%에 해당하지만 농업 생산은 GDP 구성비율로 볼 때 전체 GDP의 11% 수준에 불과한 상태이다. 태국의 주요 농업 생산물은, 쌀, 고무, 옥수수, 카사바, 사탕수수, 코코넛, 담배 등이다. 태국은 세계 14번째 쌀 생산국이자 1위 수출국으로서 주로 중부 평원에서 생산하고 있다. 연 평균 2,200만 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750만 톤 가량이 수출되고 있다.
- **태국의 수산업**은 전체 GDP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업 인구는 약 45만 명이고, 주요 수출 수산물은 새우, 바닷가재, 오징어, 참치 등이며 특히 냉동 새우가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다.
- **광업 생산**은 전체 GDP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중요 광물은 갈탄, 주석, 아연, 석고 등이며, 최근 들어 태국만의 원유와 천연 가스 채취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광 및 구리광도 발견됐다. 주요 보석은 사파이어, 루비, 가넷, 제다이트 등이며 주요 수출국은 일본, 이스라엘, 벨기에 등이다.
- **태국의 제조업 종사자**는 5,587만 명으로 전체 노동 인구의 15.47%에 해당하는 인구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제조업 생산은 전체 GDP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제조업 분야는 전자, 자동차, 섬유, 식품, 철강, 화학 등이다.
- **태국의 자동차 산업**은 전략 육성 산업으로서 아세안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 기준 15개 외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조립 생산을 했으며, 총 생산 대수는 1.4백만 대에 달했다. 자동차 및 부품은 전자 부품 다음의 수출 품목으로 전체 생산량의 2/3 가량이 수출됐다. 한편 태국 자동차 시장의 95% 이상을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 **식품 산업**은 1970년 대까지만 해도 태국 최대의 제조업이었다. 공업화의 진전으로 다른 제조업에 비해 성장 속도가 늦어 1970년대 제조업 중 식품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대 20%에서 1990년대 9%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식품 산업은 태국의 중요한 수출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식품 가공 기술도 발달해 냉동, 통조림, 건조 식품 등은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냉동 새우, 가공 닭고기, 과일 통조림 등은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품목이다.
- **섬유 및 의류 산업** 역시 태국의 중추 제조업이다. 태국에는 4,500여 개의 섬유 및 의류 공장이 있으며, 제조업 고용 인구(560만 명) 중 100만 이상의 인력을 섬유 산업에서 흡수하고 있다. 태국의 섬유 산업은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 발전해 왔으나 이제 인도네시아, 중국, 방글라데시 등의 부상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태국의 섬유 및 의류 제조업자들은 이제 새로운 투자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 **교통 통신 분야**는 전체 GDP의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통신 분야는 최근 무선 통신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태국 통신 산업은 1997년 중반까지 20년 동안 호황을 누려 왔고 이로 인해 정부나 민간 모두 외자를 유치 네트워크 확장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1997년 7월 외환 위기 이후 바트화 평가절하로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외자를 유치했던 정부나 기업 모두가 타격을 받았지만 1999년 이후 태국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2008년 기준 무선 전화 가입자는 3,590만 명을 예상하고 있다.

(단위: 백만 달러)

	2005	2006	2007	2008
<b>농업</b>	<b>17,956</b>	<b>22,021</b>	<b>26,357</b>	<b>31,753</b>
농업, 수렵, 임업	15,370	19,246	23,287	28,633
어업	2,586	2,775	3,070	3,120
<b>비농업</b>	<b>158,128</b>	<b>184,819</b>	<b>219,433</b>	<b>241,321</b>
광산업	5,524	6,777	8,036	9,447
제조업	61,199	72,593	87,556	98,159
전기, 가스, 수자원 공급	5,472	6,303	7,176	7,838
건설	5,318	6,114	7,144	7,663
도·소매업	25,888	29,612	34,526	36,903
호텔, 식당	8,612	10,188	12,057	13,255
운송, 물류, 통신	12,882	15,012	17,992	19,039
금융중개업	6,576	7,548	9,015	10,642
부동산, 임대업	4,927	5,503	6,231	6,381
공공행정, 국방	8,099	9,231	10,799	11,656
교육	6,985	8,355	10,424	11,276
보건, 사회사업	3,362	3,959	4,739	5,048
지역사회, 개인서비스 활동	3,074	3,394	3,470	3,723
가정부 등 가사지원	212	230	267	290
<b>국내 총생산</b>	<b>176,085</b>	<b>206,840</b>	<b>245,790</b>	<b>273,074</b>

주: 2007, 2008 년도 수치는 추정치임.

자료: 태국경제사회발전위원회(NESDB)

# 태국 수출입 현황

## I. 태국의 국별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06	2007	2008
전체	-	129,532.3	153,703.1	177,840.9
1	미국	19,437.8	19,409.5	20,274.5
2	일본	16,377.5	18,116.1	20,090.2
3	중국	11,717.5	14,839.5	16,190.8
4	싱가포르	8,335.5	9,606.0	10,114.7
5	홍콩	7,132.3	8,670.2	10,046.3
6	말레이시아	6,606.7	7,809.2	9,917.5
7	호주	4,347.9	5,936.5	7,982.5
8	인도네시아	3,310.5	4,815.7	6,325.6
9	베트남	3,069.9	3,802.2	5,017.8
10	네덜란드	3,236.5	3,859.3	4,175.8
11	영국	3,397.8	3,621.8	3,969.8
12	한국	2,662.7	2,979.0	3,668.6
13	필리핀	2,569.5	3,010.7	3,512.5
14	인도	1,806.6	2,654.6	3,401.4
15	독일	2,317.7	2,919.7	3,198.4
16	아랍에미리트	1,470.6	2,184.8	2,793.3
17	대만	3,357.4	3,325.2	2,702.7
18	캄보디아	1,230.2	1,350.0	2,040.1
19	스위스	917.7	1,423.0	1,979.6
20	이탈리아	1,490.5	1,862.6	1,979.4

자료: 태국상무부

## II. 태국의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NO.	HS.CODE	품목명	2007	2008
전체			153,703.1	177,840.9
1	84	보일러, 기계류	28,877.9	31,152.3
2	85	전기기기, TV, VTR	26,318.0	25,775.2
3	87	일반차량	13,668.8	16,667.7
4	40	고무와 그 제품	9,589.0	11,695.3
5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6,840.8	11,444.3
6	71	귀석, 반귀석, 귀금속	5,381.4	8,270.3
7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7,575.8	8,269.7
8	10	곡물	3,589.7	6,438.3
9	16	육어류 조제품	4,356.4	5,720.9
10	73	철강제품	2,462.6	3,165.9
11	90	광학, 의료, 측정, 검사, 정밀기기	2,573.0	2,854.8
12	29	유기화합물	2,765.1	2,846.4
13	03	어패류	2,425.7	2,612.9
14	72	철강	2,212.3	2,331.7
15	61	의류(편물제)	2,032.5	2,125.9
16	20	채소, 과실의 조제품	1,442.1	1,715.9
17	17	당류, 설탕과자	1,409.2	1,665.8
18	88	항공기	1,711.9	1,450.3
19	49	서적, 신문인쇄물	744.1	1,449.3
20	62	의류(편물제 이외)	1,426.3	1,405.5

자료: 태국상무부

### Ⅲ. 태국의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HS.CODE	품목명	2007	2008
전체	-		139,958.9	178,653.1
1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25,887.5	37,250.9
2	85	전기기기, TV, VTR	27,734.8	28,921.4
3	84	보일러, 기계류	19,241.0	22,236.4
4	72	철강	8,293.2	13,520.2
5	71	귀석, 반귀석, 귀금속	4,223.2	9,359.5
6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5,159.1	6,166.2
7	87	일반차량	4,471.3	5,731.7
8	73	철강제품	3,597.7	4,918.4
9	29	유기화합물	4,204.3	4,643.7
10	74	동과 그 제품	3,208.7	3,523.1
11	90	광학, 의료, 측정, 검사, 정밀기기	2,880.4	3,462.2
12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2,366.1	2,772.2
13	38	각종화학공업생산물	1,835.0	2,463.4
14	31	비료	1,319.5	2,395.6
15	03	어패류	1,637.9	2,281.5
16	28	무기화합물	1,347.4	2,110.9
17	23	조제사료	954.1	1,530.6
18	40	고무와 그 제품	1,244.4	1,529.8
19	89	선박	223.5	1,364.2
20	48	지와판지	1,096.4	1,316.2

자료: 태국상무부

# 한-태국 교역현황

## I. 한-태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 한국의 대 태국 수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에는 57.8억달러를 수출하여 2007년 대비 28.8%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 한국의 대 태국 수입은 2008년 기준 42.8억 달러로서 2007년 대비 13.6%의 증가를 보였으며 무역수지는 15억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연도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2006		2007		2008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4,246	25.6	4,488	5.7	5,779	28.8
수입	3,328	23.8	3,769	13.2	4,281	13.6
수지	918	32.7	719	-21.7	1,497	79.2

자료: KITA

## II. 대 태국 품목별 수출 현황

- 한국의 대 태국 품목별 수출 현황을 보면 철강제품의 수출이 2008년 54.2% 증가한 15억 달러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 철강제품에 이어서 석유화학제품, 전자제품, 비철금속제품, 기계류, 비료가 대 태국 수출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07		200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488,400	5.7	5,779,104	28.8
1	철강제품	977,281	38.5	1,507,221	54.2
2	석유화학제품	492,853	-2.7	593,364	20.4
3	전자부품	577,893	7.9	541,433	-6.3
4	비철금속제품	294,931	-2.5	380,364	29
5	산업용전자제품	284,664	-4.8	292,234	2.7
6	기초산업기계	152,799	30.2	261,478	71.1
7	수송기계	208,218	84.1	255,003	22.5
8	산업기계	146,211	-15.5	213,288	45.9
9	가정용전자제품	178,946	-48.3	201,161	12.4
10	정밀화학제품	143,258	14.7	190,274	32.8
11	금속광물	98,257	-43.6	172,090	75.1
12	비료	102,409	8.2	128,277	25.3
13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111,765	20.3	127,303	13.9
14	수산물	87,678	42.1	122,940	40.2
15	직물	110,783	-4.8	100,968	-8.9
16	중전기	63,979	23.3	86,335	34.9
17	전선	74,310	42.3	82,922	11.6
18	광물성연료	14,652	-73.4	64,210	338.2
19	기타기계류	48,733	7.4	63,248	29.8
20	플라스틱제품	60,470	2.9	62,782	3.8

자료: KITA

### Ⅲ. 대 태국 품목별 수입 현황

- 한국의 태국으로부터의 품목별 수입 현황을 보면 전자부품에 대한 수입이 2008년 기준 6.4억 달러로 가장 크다.
- 전자 부품에 이어서 임산물, 광물성연료, 농산물, 수산물 등 1차 산업 제품이 태국 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07		200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3,769,191	13.2	4,281,655	13.6
1	전자부품	878,411	23.9	643,433	-26.7
2	임산물	467,142	-1.5	567,234	21.4
3	산업용전자제품	574,496	14.2	552,330	-3.9
4	광물성연료	89,322	-58.6	471,201	427.5
5	농산물	180,849	25.4	465,411	157.4
6	충전기기	65,638	38	179,306	173.2
7	가정용전자제품	142,923	29.1	170,532	19.3
8	석유화학제품	284,010	82.8	124,604	-56.1
9	수산물	148,418	3.4	112,858	-24
10	제지원료 및 종이제품	121,047	22	111,089	-8.2
11	비철금속제품	115,190	10.4	109,253	-5.1
12	정밀화학제품	87,459	36.1	103,808	18.7
13	기초산업기계	87,866	17.5	93,827	6.8
14	수송기계	30,347	3.9	56,398	85.9
15	철강제품	84,358	67	56,257	-33.3
16	섬유사	62,216	-17.4	49,972	-19.7
17	섬유제품	30,850	-1.5	44,273	43.5
18	오염제품	37,246	-13.3	43,059	15.6
19	고무제품	43,843	-1.2	39,228	-10.5
20	플라스틱제품	25,546	12.1	28,205	10.4

## 한국기업 투자 현황

- 태국은 우리나라 아세안 투자 진출의 거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태국 투자가 가장 활발한 기간은 1997~1998년 중이었으나 이후 양국이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투자가 급감하였다. 최근들어 다시 태국 투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삼성이나 LG와 같은 가전 업체의 투자확대로 인해 관련 중소기업의 소규모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 2008년 우리나라 대 태국 직접 투자는 '07년 대비 54.9% 증가한 2억 657만 달러를 기록했다. 총 49 건의 투자신청 중 56건이 승인되었으며, 이중 광물, 세라믹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전기전자와 화학/제지 부문이 따르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과 같은 아세안 국가에 비해 태국 내 우리나라의 직접 투자가 높은 편은 아니나 지난 3년간(2006~08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 태국 연도별 투자 현황(승인기준)**

(단위: 백만 바트)

구분	2005	2006	2007	2008
승인건수	31	24	46	56
투자액	1,485.5	4,024.8	5,985.0	9,273.1

주: 평균 환율- 미\$1 = 40.3(2005), 36.05(2006), 33.72(2007), 34.90(2008)

자료: 태국 투자청 (BOI)

**연도별 한국의 대 태국 투자프로젝트(BOI 승인 기준)**

(단위: 백만 바트)

산업	2006		2007		2008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농업	-	-	-	-	-	-
광물, 세라믹	-	-	3	598.8	3	5,619.2
경공업/섬유	1	30.5	-	-	3	114.9
금속제품, 기계	6	701.8	12	1,548.5	12	317.0
전기, 전자제품	13	3,191.0	22	1,570.5	15	1,580.8
화학, 제지	2	54.0	6	283.5	14	838.0
서비스	2	47.5	3	1,983.7	9	803.2
합계	24	4,024.8	46	5,985.0	56	9,273.1

주: 평균 환율- 미\$1 = 36.05(2006), 33.72(2007), 34.90(2008)

자료: 태국 투자청(BOI)

---

# 태국 비즈니스 Tips

---

## I. 비즈니스 에티켓

### ○ 약속

- 태국인의 성격은 동남아 특유의 여유로움에 시간 개념이 다소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비즈니스에서는 정확한 일 처리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특히 상담 시간은 철저히 지키는 것을 예의로 알고 있으며, 교통 혼잡 등으로 상담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연락을 하여 양해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업체가 상담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담 장소 연락처 또는 태국업체의 핸드폰 번호를 입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담 약속은 상담일 최소 1주일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 ○ 식사

- 태국의 음식은 중국의 젓가락 문화, 인도의 커리, 포르투갈의 칠리가 혼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쌀을 주식으로 하며 우리와 비슷하게 한꺼번에 차려먹는 경우가 많다. 맵거나 짠 양념이나 소스를 사용해서 주로 만들기 때문에 대체로 음식이 자극적이다. 시각적인 요소를 중요시하며, 향기를 내고, 신맛, 톡 쏘는 맛이 복합되어 있다. 한편, 태국에서는 하루 세끼 식사 중 저녁 식사를 중요시한다. 식사량은 적고, 과일, 과자, 떡 등 간식을 즐기는 편이다. 전통적으로 음식은 반상, 대나무나 원목으로 만든 마룻바닥에 차려놓고 둘러 앉아 손으로 먹는다. 국물이 있는 국수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고, 튀긴 국수는 포크와 스푼을, 생선을 넣은 국수는 숟가락만 사용해서 먹는다. 밥 종류는 접시에 담아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숟가락 하나만으로 식사하는 사람들도 많다. 포크는 접시의 음식을 스푼으로 뜯 때 보조 역할을 하거나 스푼에 붙은 음식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다. 식사 때 스푼과 포크의 부딪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편이다. 음식을 천천히 먹으며, 먹을 때 소리를 내지 않는다. 또한, 음식이 입안에 있을 때는 말을 하지 않는다. 국이 있는 음식은 들이마시지 않고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다.

## ○ 선 물

- 관대함, 후함은 태국의 전통적인 가치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태국 사람들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많다. 작게는 일상생활에서 케이크나 스낵을 주고받는 데서도 나타난다.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선물을 뜯어보거나, 선물의 가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좋지않다. 태국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주고받은 그 자체가 의미 있고 고귀한 것이지, 내용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눈앞에서 그 선물의 포장을 뜯어버린다고 해도 문화적 차이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선물을 준 자체에 대한 고귀함은 희생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떠한 이유에서건 선물을 거절하거나 받은 선물을 되돌려 주어서는 안 된다. 넉넉치 못한 사람이 값비싼 선물을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편 값비싼 선물을 받았다고 하여 부담을 느끼고 이에 상응하는 선물을 사서 보답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비즈니스 대상이 남자 라면, 그 사람이 술을 좋아하던 안 좋아하던 간에, 고급술을 선물하면 좋아한다. 여자의 경우라면, 유명 브랜드 향수, 문구류, 액세서리 등이 무난하다. 한편, 선물을 받고서 감사를 표하는 데 있어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태국 사람들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감사하다고 하면, 더 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녀 공통으로 한국산 인삼차 등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 ○ 인 사

- 태국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할 때 악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와 같이 양 손바닥을 합창한 자세로 목례를 한다. "WAI"라는 말로 인사를 하며 일반적으로 손아래 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하고 손윗사람은 같은 자세로 이에 응답한다. 태국에서는 '성'으로 타인을 호칭하는 대신 "KHUN:(MR. 혹은 MS. / MRS.)"의 뜻을 앞에 넣어 이름을 부르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불리었을 때 상대방을 무례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 ○ 복 장

- 태국의 비즈니스맨은 평상시 대부분 양복 상의를 착용하지 않는다. 냉방 에어컨이 되어있는 실내에서는 반팔로는 좀 팔이 시린 느낌이기 때문에 주로 긴 팔 와이셔츠에 넥타이 차림이다. 양복 상의는 인사 방문, 리셉션, 세미나 등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착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비즈니스맨들이 출장 올 때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반팔 와이셔츠보다는 긴 팔 와이셔츠를 입고 비즈니스 상담에 임하는 것이 격식에 어울린다.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도는 12월 말, 1월 초 기간이나 북쪽 산간 지방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얇은 스웨터나 재킷을 가져가는 것도 좋다.

## ○ 역사적/문화적 금기사항

- 특별한 문화적 금기사항은 없으나 머리를 만지면 영혼이 달아난다는 고대 미신에 따라 머리를 만지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고의건 아니건 상대방의 머리를 건드리게 되었다면, 즉시 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왕조에 대한 존경심이 높으므로 국왕이나 왕족에 대한 불손한 언행은 삼가는 것이 좋으며, 특히 태국 헌법에 의해 국왕에 대한 비난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왕에 대한 공개적인 모독은 구속 사유가 된다. 참고로 극장 또는 공공 장소에서 태국 국가가 연주될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일어서서 경의를 표하는 것이 좋다. 태국인들은 공공연한 장소에서 하찮은 입씨름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태국인들은 그런 행동을 가장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 장소에서 남녀 간 애정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 태국은 불교 국가로 일상 생활에 불교가 아주 밀착되어 있으며, 불교 행사 기간 중에는 금주를 하고 일반 주점에서조차 주류를 팔지 않으므로 술에 취한 행동을 할 경우 현지인과의 마찰 가능성이 있다. 모든 불상은 크든지 작든지, 오래된 것 이든 새 것이든 신성한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사진을 찍기 위해 불상에 올라가거나 불경스러운 행동을 해선 안 된다. 발로 사람이거나 물건을 가리키는 행동은 무례한 것으로 여겨진다.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을 오래 쳐다보는 것도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진다. 때로는 싸움을 거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태국인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

## ○ 비즈니스 상담/ 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 태국 업체와의 가격 상담은 지루할 정도로 계속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상담 현장에서 가격 협의를 하고도 추가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많은 실정이다. 이는 태국인들이 금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비난 받기도 하지만 가격 설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가격 재협상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태국 업체는 가격 협의 후, 보다 저렴한 제품을 발견할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여야 한다. 국내 업체는 태국 업체의 집요한 가격 인하 요구에 거래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포기보다는 가격 설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 시부터 최초 거래 성약 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의사 결정 과정의 복잡성과, 다수의 태국 기업들이 완제품보다는 중간재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원재료의 품질 확인 등에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실무자들과의 상담 시에는 태국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태국인들은 인사할 때 악수 대신 기도하는 자세인 합장을 하므로 합장을 할 경우 친근감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태국식 인사는 상담을 부드럽게 이끌 수 있다. 숙지할 태국어로는 사왓디 캅(안녕하세요), 캅쿤 캅(감사합니다)이 있다. 또한 태국인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므로 상담 시 흡연은 삼가는 것이 좋으며, 선물

로는 건강에 최고로 알려진 인삼차가 적당하다. 바이어에 대해 추궁하는 듯 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바이어가 약속 시간에 늦었거나, 한국 업체에 대해 다소 불성실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도 화가 난 듯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태국 문화 특성상, 이러한 태도는 파트너로 하여금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비즈니스 거래가 중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웃차림이나 첫인상으로 바이어를 평가하려는 경향은 지양해야 한다. 상담 종료 직후 파트너가 시야에서 벗어나기 전에 웃거나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한국 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파트너의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의 1/5수준이지만 많은 업체 CEO들이 태국내 고소득 계층임을 감안하여 상담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모든 걸 단기간에 결정하려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태국 비즈니스 특성상 단기간에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갖고 상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상담 시, 태국 바이어들은 상담 제품에 대하여 시장성이 불확실하더라도 적극적인 듯 하는 태도를 보일 때도 있으며, 때로는 웃으면서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 경우, 우리기업이 한국으로 귀국 후 연락을 취하더라도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태국 수입상들은 품목별로 자기 영역을 구축하여 상호 이익을 보호하는 체제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태국 수입상들은 국내 업체가 에이전트를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에이전트를 모색하는 것을 국제 상거래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국내 업체와 수입상 간에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없다 해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태국의 무역 관행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태국에서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은 시장 진출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만큼 거래선에 대한 능력 및 신용을 파악하고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약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에이전트 계약 체결 후 추가 에이전트 발굴 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태국 수입업자 간 상호 정보 교환에 따라 이전 에이전트도 거래 관계를 단절하는 사례가 있다. 태국인은 흥정 문화에 익숙해 있어 가격 협상에 뛰어나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으며, 태국 시장 진출은 현지 시장 구조를 잘 알고 있고 신용과 경험 있는 현지 에이전트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고 선전은 비용이 많이 들며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다. 국제 비즈니스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바이어, 재정 및 재고(Inventory)에 문제가 있는 바이어, 협상 중에 사업의 이점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지나치게 좋은 신용 기간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사업 전반에 대한 비전이 없는 바이어는 피해야 한다.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등이 불명확하거나, 전문 카탈로그나 기업 홍보물 등을 준비하지 않은 바이어도 피하는 것이 좋다. 제품 생산원가와 관련해서 간접비(Overhead Cost)를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인 가격을 요구하는 바이어도 피해야 한다